

고독과 커피·눈물...양림동 시인 '김현승 詩 문학상' 제정

다형기념사업회 주최 상금 2천만원...남구청·광주예총·광주일보 후원
10월 19일 전일빌딩245서 시상식·문화제...강연·축하 공연 등 다채

가을이 오면 시나브로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고독과 커피 그리고 눈물의 시인 다형(茶院) 김현승(1913-1975). 김현승 시인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이 자랑하는 지성 시인 가운데 한 명이다. 절제된 감수성과 여백미 느껴지는 모던함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추구했던 시인이다. 남구 양림동은 소년 김현승이 무등산을 바라보고 시심을 함양했던 곳이다. 평양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는 부친인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양림동에 정착했다.



사직공원에 있는 김현승 시 관련 조형물

양림동은 근대기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와 정착한 지역이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학교와 병원 등 근대 건축물이 곳곳에 자리한다. 다형의 문학에 드리워진 양림동은 기독교적 관점의 '광주의 예루살렘'을 넘어 창작 발원의 저수지라 할 수 있다.

다형 김현승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문학상이 제정돼 화제다.

김현승 시인의 시를 사랑하고 문학정신 선양과 계승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설립된 다형기념사업회(대표 백수인·기념사업회)가 '김현승 詩 문학상'을 최근 제정했다.

기념사업회는 詩 문학상 제정과 아울러 2023년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는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 수상자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19일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신성과 고독의 시인이자, 눈물과 보석과 별의 시인" 다형 김현승의 시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문학상을 제정했다"면서 "현대문학사를 대표하는 다형을 선양하는 데 기념사업회도 힘을 보태자는 취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시에서 공모하는 문화예술상 가운데 김현승문학상, 박용철문학상, 정소파문학상이 수여되고 있으나 적합한 수상자를 배출하지



생전의 다형 김현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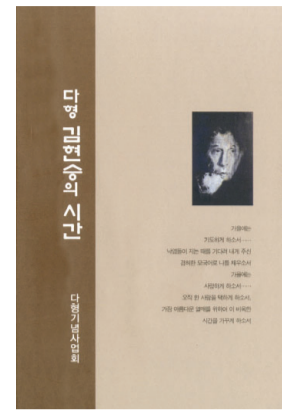
<다형기념사업회 제공>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한 사정 등을 다각도로 감안해 이번에 '김현승 詩 문학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주남구청, 광주예총, 광주일보, 광주문인협회가 후원하는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은 등단 20년 이상의 기성 시인을 대상으로 하며, 문단의 저명한 문인들로 꾸려진 심사위

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10월 중 개별 통지된다.

이에 앞서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다형 김현승의 시간' (환림)을 발간해 광주에서 그를 기념하고 현장을 진행한 바 있다. 책에는 이근배 시인을 비롯해 김포전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손광은 시인, 문순태 소설가, 이은봉 대전문화관장, 한희원 미술관



하기도 했다.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 시상식은 10월 19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8층)에서 열리는 '김현승 詩 문학제'에서 진행된다.

문학제는 개회사에 이어 전경희 시낭송가가 '플라타너스'를 낭송하고 백수인 대표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이근배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문순태 소설가, 광주남구청장 김병래, 광주예총 회장 임원식의 축사와 이근배 시인의 심사평이 발표된다.

또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 시상식에 이어 축하공연으로 테너 김백호가 '가을의 기도'를 부른다.

문학강연도 펼쳐진다. 문순태 소설가가 '다형 김현승의 시와 문학세계' (가제)를 중심으로 인연과 추억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배우 김희선, '현대미술 거장 6인'전에 특별함 더하다

이이남 작가 아트컨텐츠디렉터 참여
22일~10월15일 더현대 서울 ALT.1

이이남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에 배우 김희선이 아트컨텐츠 디렉터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화제다. 이이남 스튜디오는 이 작가가 현대미술의 거장들인 박서보, 이우환, 박석원, 김강용, 강형구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현대미술 거장 6인-ATO: 아름다운 선물'전(22일부터 10월 15일)에 참여하는데, 데뷔 30주년을 맞은 배우 김희선이 이 작가 아트컨텐츠 디렉터로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시 장소는 더현대 서울 6층 ALT.1

특히 데뷔 30주년을 맞은 배우 김희선이 이 작가 인터뷰부터 섭외, 작품 셀렉에 힘을 쏟아 이번 전시는 특별함을 더한다는 후문이다. 이 작가는 전시에서 고전회화 '해피니스', '시가 된 폭포'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김희선은 지난 8월 양림동 스튜디오를 방문해 이 작가와 오랜 시간 작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작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선은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 초창기 작업부터 최신작까지 대표작들을 모아 작업세계를 보여줄 예

정이다. 김희선은 "이이남 작가님을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로서 생활해왔던 분야 이외에 무엇인가 집중해 하나하나 만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이이남 작가님 참여로 이번 전시가 더욱 특별해 질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이이남 스튜디오는 "이 작가는 최근 중국 후난뮤지엄 전시에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며 "하반기에는 이스라엘 국제미디어 전시와 두바이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트페어, 독일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 개인전 등 국내외를 넘어 전 세계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배우 김희선(오른쪽)이 이이남작가가 참여하는 '현대미술 거장 6인-ATO'전의 이 작가아트 콘텐츠 디렉터로 참여한다. <주에이치아트이엔티 제공>

◀'해피니스'. <이이남 스튜디오 제공>



오가며 통하는 것

고흥 도화현 미술관 '교통지도'전
권시숙 등 44명 참여...30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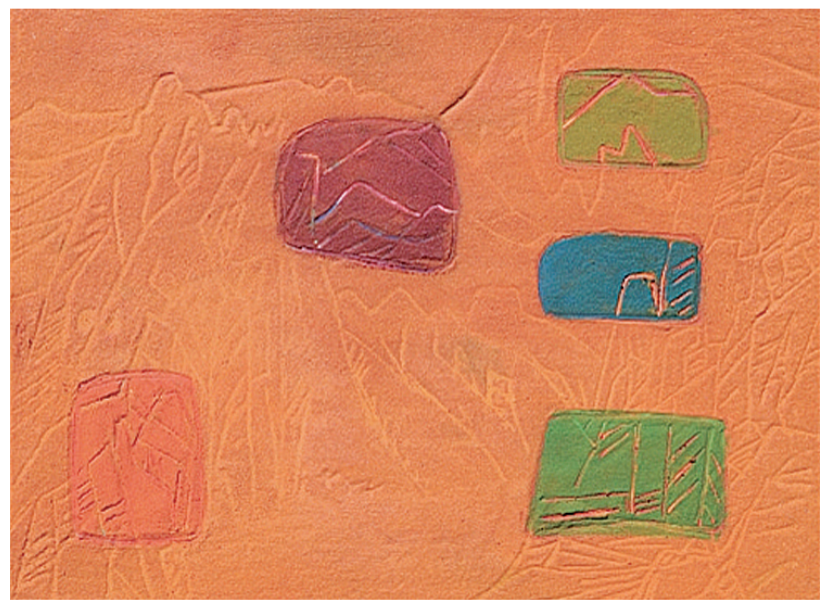
'교통'의 사전적 의미는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짐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서신이나 의견 등을 주고받거나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 오가는 일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오가며 통하는 것'이 교통의 본질이다.

'交通之圖(교통지도)'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고흥 바닷가에 자리한 도화현 미술관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남도의 한미한 바닷가에서 교통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는 발상이 이채롭다. 오는 30일까지이며 권시숙, 권신애, 김동석, 김봉화, 김선두, 김정옥, 김경좌 등 모두 44명 작가가 44점 작품을 출품했다.

'교통지도'는 땅 위의 여러 갈래 길을 상세하게 그려놓은 길 안내도를 말한다. 좁더 넓은 뜻으로 확장해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가 그린 그림을 나누는 자리다.

이번 전시는 도화현미술관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발표 플랫폼 역할을 해오던 서울 내일갤러리와 교류전으로 마련됐다. 지금까지 2회의 교류전을 펼쳤으며 이번이 3회째다.

교통지도가 사람들을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길잡이인 것처럼, '交通之圖(교통지도)'는 각자 다른



권시숙 '살, 잇다'

작가들의 시선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루며 다양한 화음을 연출하는 총체적 지형도이다.

권시숙 작품 '살, 잇다'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사물을 가느다란 길로 연결해 '교통'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는 어느 시의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섬과 섬 사이에는 뱃길과 연륙교가 있어 영원히 동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박성천 도화현미술관 관장은 "각 지역의 작가들이 참가해 폭넓게 펼치는 이 '交通之圖(교통지도)'전은 나누고 음미하는 화합과 소통의 지형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

아트인뮤직컴퍼니, 22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오즈의 마법사'는 작품성 뿐만 아니라 OST 'Somewhere Over the Rainbow'로도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작품이다. 영화음악은 원작의 전개와 흥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채로운 '영화음악'들



영화 '너의 이름은' 스틸컷.

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아트인뮤직컴퍼니가 오는 22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이는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가 바로 그것. 특히 공연은 감각적이고 몽환적인 애니메이션 작업물로 인기를 구가하는 애니메이션 거장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애니메이션 OST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신카이 마코토는 일본에서 '제40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각본상', '제42회 LA 비평가 협회상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공연의 막은 마코토 감독의 대표작 '초속 5cm' OST '벚꽃이 연다. 영화 '날씨의 아이'에 등장하는 각 선별 다채로운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는데, '날씨의 아이 테마', '바람의 목소리'부터 '불꽃축제', '사랑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있을까?'까지 다양한 곡이 울려 퍼진다. 이어 '스즈메의 문단속' 특집으로 구성된 2부에서는 영화 속 장면들을 상상하게 하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폐 유원지', '드라이브', '도쿄 상공', '폐허가 된 온천마을', '문단속' 등 관객과 만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아트인뮤직 컴퍼니가 주관한다. 지휘는 임풍국, 보컬은 보이소 웡이 맡으며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계획이다.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4만4000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광주예술의전당 제공>